**교제와 나눔**

**ㆍ온라인예배:** 당분간 계속됩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도록 기도해주세요.

**ㆍ말씀편지:**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ㆍ5월3일은 어린이주일, 5월10일은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어려운 목회자 및 교회 지원:** 제직운영위원들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그동안 교우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빌레펠트교회의 이재용 목사님 외 세 곳 한인교회와 한 곳 외국인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ㆍ이사:** 박상훈-김명희(4/21, Klosterstr.66, 40211 Düsseldorf)

**ㆍ생일:** 김하은, 이영환, 박성준, 박성희, 이윤석, 신재혁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겔36:16-38 월/겔37:1-14 화/겔37:15-28 수/겔38:1-23

목/겔39:1-29 금/겔40-42장 토/겔43:1-27 일/겔44:1-3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19일** | **4월 26일** | **5월 3일** | **5월 10일** |
| **예배기도** | 박상훈 | 조선형 | 어린이 | 김한진 |
| **말씀일기** | 석혜진 | 백윤정 | 어린이 | 송인선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16호 2020년 4월 19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가 정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시130:5-8 | | 찬송/Gemeindelied 10장 전능왕 오셔서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80번 | | 찬송/Gemeindelied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 기도/Gebet 박상훈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석혜진 교우  찬양/Chor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에스겔 36:16-38** | | 설교/Predigt **’그 이름 위하여’**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봉헌/Kollekte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 광고/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설교>**

**그 이름 위하여**(겔36:16-38)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에게 단지 새로운 목자이자 지도자를 보내고 회복된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땅에 살만한 가치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백성을 다시 모으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려,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여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절**(현대어성경) “그러자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 흩어져 살며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어디에서나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지만 저들이 나라를 빼앗길 때도 여호와는 막아주지 못하였다!’ 하고 흉을 보게 만들었다. / 이처럼 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나만 더욱더 악명을 떨치게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래에 이스라엘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려 하는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눈꼽만큼이라도 어떤 사랑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즉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은혜 아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물을 뿌리심으로 과거에 부정했던 것을 다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깊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실텐데, 그것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계획은 단지 **개인의 내면 차원만이 아니라, 그 땅의 풍성함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땅은 비옥함과 풍성함의 궁극적 상징인 “**에덴 동산 같이**”(35) 될 것이고, 그 곳에는 **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멸하신 것을 다시 세우시고, 황폐케 하신 것을 다시 심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38)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어야**겠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소극적인 마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원문**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마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수용성이 커서 잘 **공감하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배려하고 공감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혹 굳은 마음은 아닌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지 못하는-반응(리액션)이 없는 딱딱한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이 던져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26)이라는 이 약속이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간 한번도 단톡방에서 반응이 없으셨던 분들의 반응-부드러운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총의 또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에스겔의 선포에, 똑똑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분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최고 최선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듯이, 최고이신 하나님-거룩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에 못미치는 것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나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사랑할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에게서는 회복의 근거가 조금도 없다는 말씀, 즉 우리 인간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살 길도 없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생각은 **신약에 와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엡2:3-7**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원에서도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믿음조차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 귀한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뇌물’을 주고 받는 인생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죄-수치스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정직하게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그 분께 무릎꿇으면 되는데, 그 분 품에 안기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제가 볼때는, 우리 인간들이 **개한테도 배울 게 적지 않습니다**. 개는 적어도, 먹을 것-개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최상의 것-그것 얻기 위해서는 즉시 엎드립니다. 어디서든 엎드립니다. 선물을 받아 먹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엡2:9-10**을 마저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로에 의해(by)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through), 선한 일을 위하여(for)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축복-사명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 권능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평생을 감사 찬양과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